

8월 호우 대응 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」, 「복구대책지원본부」 체제로 전환

- 호우 피해 이재민 구호, 응급복구, 피해 조사 등 조속한 일상회복에 역량 집중

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8.15.~18. 호우 대응·수습과 관련하여 8월 21일(금) 오전 9시부터 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」 대응 체제를 종료하고 즉시 「복구대책지원본부」 체제로 전환·가동한다고 밝혔다.

이번 조치는 경남 통영·거제 등 남부지역 피해 시설의 신속한 응급복구와 이재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함이다.

「복구대책지원본부」는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을 중심으로 ▲복구지원총괄반 ▲재난구호반 ▲심리지원반 ▲현장지원반 ▲기후부, 국토부, 중기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응급복구반으로 구성·운영된다. 아울러 피해 규모에 따라 ‘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’도 운영할 예정이다.

지원본부는 사유·공공시설의 응급복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, 임시주거시설에 머무는 이재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호활동에 집중한다.

특히, 인명·주택 등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행·재정적 지원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.

윤호중 장관은 “신속한 피해 복구와 실질적인 이재민 지원 등 피해 주민들께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범정부 지원에 총력을 다하되, 복구과정에서 현장 작업자의 안전도 확보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
이어 “피해 주민들께서 하루빨리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, 지방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앞으로의 피해 조사부터 복구계획 수립까지 미흡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”고 당부했다.

담당 부서	재난복구지원국 복구지원과	책임자	과 장	박종빈 (044-205-5310)
		담당자	사무관	신명수 (044-205-5321)

